

보존된 <한글킹제임스성경>과 변개된 <개역성경/개역개정판>의 구절 비교

- 변개된 성경이 만들어낸 교리상의 오류 -

여기 수록된 것은 극히 일부만을 발췌한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이송오 목사의 저서 <하나님께서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 <현저한 차이>, <영원히 세워진 주의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한글킹제임스성경	개역성경/개역개정판	교리상의 오류
창 1: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 채우고”라는 말씀은 사탄의 반역으로 처음 창조된 세상이 심판받은 이후에(창 1:2)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다시 창조되었음을 알려 주는데, 이 진리를 제거했다.
창 2:7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이 영, 혼, 몸의 세 부분으로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가려 버렸다(고전 15:45 참조).
창 10:21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야벳이 형이라는 사실은 모든 히브리어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도 셈이 장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출 3:1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인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인 “주”(LORD), 곧 “여호와”(JEHOVAH)의 뜻이 “나는 곧 나니라”인데 이 말씀을 삭제하고 인본주의 철학적 개념으로 그 뜻을 왜곡했다.
욥 19:26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덮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몸의 실제적인 부활을 부인하고 있다.
욥 41:1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뿔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뿔 수 있겠느냐	리비아단은 사탄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악어라고 변개함으로써 사탄의 실체를 가리고 있다.
시 12:7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개역개정판 - 그들을)	“말씀들”을 “저희”로 변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없애 버렸다.
전 3:21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라	영을 혼으로 오역했다. 짐승에게는 인간의 영과는 다른 영이 있다는 사실을 가려 버렸다.
사 14:12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끌어져 내렸느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루시퍼”는 “사탄”인데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변개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사탄의 성경임을 입증했다.
단 3:25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터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교도의 신들의 아들로 격하시켰다.
슥 11:17	양떼를 버려 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	화 있을진저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	우상 목자는 마귀의 목자인데 못된 목자라고 그 뜻을 약화시켰다.
슥 12:10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찢었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찢은 바 그를 바라보고...	“내가”와 “니를”이 지칭하는 대상은 주, 곧 여호와이시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주, 곧 여호와이심을 가리고 있다.
마 1:6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은 우리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벳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을 때에는 다윗의 아내였는데(삼하 12:22,23), 마치 솔로몬이 간음을 통해 낳은 것으로 변개했다.
마 1:25	그녀가 첫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첫아들의 “첫”을 삭제함으로써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였다는 로마카톨릭의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마 5:2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라카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까닭없이”를 삭제함으로써 성경을 모순된 것으로 만들었다.